경기회복 기대감 갈수록 높다

소비자 기대지수 4개월연속 상승세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커지면서 소비자기대지수가 4개월 연속 기준치인 100을 넘어섰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7월 소비자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기대지수는 전달(101.5)에 비해 1.1포인트 오른 102.6으로 4개월째 100을 웃돌았다. 계절조정을 거친 소비자기대지수 역시 103.8로 6월(101.2)보다 높아졌다.

소비자기대지수는 6개월 후의 경기, 생활형편, 소비지출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심리를 나타내는 지표로, 기준치인 100을 넘으면 6개월 후의 경기나 생활형편 등이 현재보다 좋아질 것으로 보는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많다는 뜻이다.

소비자기대지수는 지난해 4월 100.6에서 5월 98.0으로 떨어진 뒤 올해 3월까지 11개월 연속 기준치를 밑돌다 1년만인 지난 4월(100.1)에야 다시 100을 넘어섰고, 이후 계속 기준치를 웃돌고 있다. /연합뉴스

신·증축 공동주택 가격 오늘부터 열람

건설교통부는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증축된 공동주택 11만2천여가구의 가격을 10일 공시하고 이달 30일까지 열람 및 의견청취를 한다고 9일 밝혔다.

6월1일자로 산정된 가격은 한국감정원의 전문조사자 210명이 현장조사 등을 거쳐 산출했으며,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나 관할 시·군·구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결과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건교부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관할관청 또는 한국감정원 지점을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건교부는 이번에 추가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청취와 재조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28일 확정 공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광주 지역 백화점들 가을 매장 속속 개편

광주지역 백화점들이 캐주얼 상품군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을 매장개편을 했다.

광주신세계는 최근 매장개편을 통해 라인·G-CUT·게스 등 8개 브랜드를 신규 입점시키는 등 캐주얼과 영웨이브 브랜드를 강화했고 아웃도어 전문브랜드 K2와 30~30대를 타깃으로 한 르꼬끄 골프를 새로 입점시켰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페이지플린·밸리걸·보니알렉스 등 여성 캐주얼 브랜드를 신규 입점시켰고 엘칸토와 이닌 등 여성 캐릭터 구두 브랜드도 선보였다.

현대백화점 광주점도 20~30대 젊은 여성고객을 겨냥해 보브·GGPX·쿠아·지고트·텔레스라프 등 인기 여성 캐주얼 의류를 새로 입점시켰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콜금리 0.25%P 전격 인상

과잉 유동성 조절이라지만…
서민·중소기업 허리휜다

한은 금통위가 8일 콜금리를 전격으로 0.25%포인트 인상함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여·수신 금리 인상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콜금리 인상은 금융권의 여·수신 금리인상을 초래해 가계 및 기업 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유동성 억제를 통해 국내 증시에도 영향력을 행사한다.

은행 예·대금리 잇단 인상…증시 영향 없어

◇**전격 인상배경**=콜금리 인상의 가장 큰 명분은 시중 과잉유동성의 흡수다. 금통위가 지금까지 한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두달 연속 콜금리 인상'을 강행한 것은 시중 과잉유동성 문제가 그만큼 심각했음을 보여준다.

또 미국발(發) 신용경색의 파급으로 전세계 증시가 조정을 받는 가운데서도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라는 호재와 확고해지는 경기상승 기조도 콜금리 인상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시중은행 금리인상**=시중은행들은 발빠르게 여·수신 금리 인상안을 내놓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국민은행은 다음주에는 0.11%가 오른 연 5.87~ 7.67%의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하나은행도 10일부터 0.11%포인트 높은 연 6.51~7.21%를 적용한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도 다음주부터는 CD금리 상승분인 0.11%를 고스란히 반영할 전망이다.

예금상품의 금리도 0.1~ 0.3%포인트 범위에서 잇따라 인상됐다. 광주은행은 10일부터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연 4.7%에서 5.0%로 인상하는 등 예금 금리를 0.1~0.3% 올리기로 했다.

신한은행도 정기예금의 최고 금리를 만기 1개월은 연 4.85%로 0.25%포인트, 만기 3개월과 6개월은 4.95%와 5.05%로 각 0.15%포인트 인상했다.

◇**증시영향 미미**=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계는 콜금리 인상이 예상치 못한 돌발변수여서 증시가 단기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 있지만 미국발 신용경색의 파장, 외국인 매매, 기업실적, 주가수준 등이 더 중요한 변수여서 시간이 지나며 안정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코스피지수는 이날 콜금리 발표를 기점으로 상승폭이 줄어든 후 급등락을 지속한 끝에 전날 대비 5.27포인트(0.27%) 오른 1,908.68로 마감됐다.

◇**중기·수출기업엔 부담**=중소기업과 수출업체는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두 달 연속 이어진 콜 금리 인상이 유동성을 떨어뜨려 중소기업의 자금경색과 금융비용 인상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원·달러 환율하락을 부추겨 수출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광주 하남산단 입주업체 관계자는 "자금이 풍부한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은 자기 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경우는 적다"며 "원자재값이 오르고 대기업들은 납품단가를 깎으려하는 가운데 금리까지 올라 이중·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수출업체들은 1차적으로 금리 인상에 따라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되는데다 금리 인상에 따른 단기외화 차입 증가로 환율 하락세가 강화될 경우 수출기업의 채산성이 급격히 나빠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개관 첫 돌 맞은 금호고속 '유·스퀘어'

올 12월 복합문화관 착공

광주의 문화 인큐베이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내 유·스퀘어〈사진〉복합문화관이 오는 12월초 첫삽을 뜬다.

금호고속은 "유스퀘어 문화관 건립이 지난달 10일 광주시의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함에 따라 행정절차 등을 감안할 때 12월초 공사에 들어가 2009년 6월 완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9일 밝혔다.

기존 광천터미널을 증축해 건립되는 유스퀘어 복합문화관은 300석 규모의 전문음악홀과 전문 연극공연장(220석), 미술전시장, 11개의 멀티플렉스 영화관 등이 들어서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된다.

금호터미널은 복합문화관이 완공되면 지역문화예술인들의 활동무대로 제공해 광주·전남의 문화예술 진흥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호고속 관계자는 "문화관은 향후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통해 문화수도 광주의 문화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버스를 이용해 터미널 접근이 용이한 광주근교의 지역민들에게도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유·스퀘어'는 10일로 개관 1주년을 맞았다. 최첨단 현대식으로 탈바꿈한 유·스퀘어는 지난 1년간 여행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30여평 규모의 야외무대와 화단·음식점 등을 새롭게 정비해 지역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생산환경 혁신기업 모집

중기청 내달 6일까지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품질향상 및 원가절감 등을 위한 공정자동화, 생산제조기술 등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프로세스 혁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2007년 하반기 생산환경 혁신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지원대상과제는 컨소시엄과제, 중소기업과제, 보급확산과제 등이다. 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9월6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www.smbafs.or.kr)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 전산 등록하면 된다.

한편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박춘근)은 올 상반기에 6개 업체 6억7천여만원을 지원했다. 문의 (062) 360-9136.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